

# ‘바다 슈퍼 푸드’ 완도 물김 생산 분주

15만4,871척 시설해 생산...평균 단가 10만원  
올해 6만톤 예상...해수부 이달의 수산물 지정

지금 완도에서는 ‘바다의 슈퍼 푸드’라 불리는 물김을 생산하느라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은 378개 어가(1만 1,635ha)에서 15만 4,871척을 시설해 김을 생산하고 있으며, 김은 10월 말부터 4월까지 채취하는데 1~2월에 가장 많이 생산된다.

완도군의 물김 위판량은 작년 대비 1,237톤이 늘어난 1만 2,187톤(1월 5일 기준)이며, 마대 당(120kg) 가격이 최고가 11만 7,000원, 최저가 9만 4,000원, 평균 단가는 10만 5,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물김 위판 예상 생산량은 6만690톤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높은 수온으로 김 생산이 부진했지만, 11월 중순 이후에는 적정 수온이 되면서 12월부터 물김 생산량이 늘었다.

완도 김은 얇고 부드러운 재래 김부터 특유의 파래향이 살아있는 파래 김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돌김, 두툼하고 거칠지만 구수한 곱창 김, 지주식 돌김 등이 생산되고 있다.

김 양식 방법 중 갯벌 위에 지주목을 설치해 김을 재배하는 ‘완도 지주식 김 양식’은 200여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 지정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제5호로 지정됐다.

완도군에서는 품질 좋은 김 생산을 위해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 김 종묘 공급 사업, 김 활성 처리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는완도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는 다시마, 김, 미역 등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고,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로 해조류를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 1월 ‘이달의 수산물’로 김을 선정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김은 해조류 중에서도 단백질 함유량이 가장 많고 비타민과 당질, 섬유질, 칼슘, 철분, 인 등 영양 성분을 두루두루 함유하고 있다”며 “특히

비타민 B1이 채소보다 많고 비타민B2는 우유보다 많으며 비타민C는 감귤의 3배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바다 완도에서 자란 김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친환경으로 양식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또한 타우린도 풍부해 숙취 해소에도 좋고 당근보다 베타카로틴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시력을 보호하는 등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에 완도 김을 많이 애용해달라”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완도에서 ‘바다의 슈퍼 푸드’라 불리는 물김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완도군 제공

## “군민 일상 회복 역량 집중 뉴노멀 시대 군정 최우선”

2022 새해설계

이승욱 강진군수



“사회 경제 전반의 불균형 회복과 군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새 정부의 정책과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군정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2022년에는 민선 7기 역점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더 큰 책임감으로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매진해 민선 8기 강진 발전을 위한 토양을 다지는 한편, 중단 없는 군정을 통해, 강진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미세먼저 차단 숲 조성 등 공공부문 탄소 중립 모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점차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을 적기에 확정하고, 강진 산단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청년주택과 빈 점포를 활용해 강력한 청년층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군 산업구조의 71.2%를 농어업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특산물 가공 유통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 농촌 경쟁력 향상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

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안전·청정 여행지 마케팅을 통한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와 같은 개별화되고 다양해진 여행 트렌드에 맞춰, 관광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고 다산과 영양, 전라병영성, 월출산 등 권역별 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조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비스 실현하기 위해 경로당의 기초 복지 시설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맞춤형 일자리도 늘리는 한편,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며, 국립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성사시켜 청소년들이 관내에서 다양한 문화유구 충족과 체험 기회 제공에 힘쓰는 방침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 이종욱 목포해양경찰서장 취임



목포해양경찰서 제26대 서장에 이종욱 총경이 취임했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새로 부임한 이종욱 서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해상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해상경비 중인 3015함 직원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해바다의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

## 해남, 단호박분말 체지방 감소 효과 확인

식품원료 등록 추진 박차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남 단호박분말 동물임상 효능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 체지방 감소, 혈당개선, 대사질환 예방효과와 기능성을 구명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 해남 특산물인 미니단호박 분말을 섭취한 비만유발 동물에서 식이섭취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과 지방조직 무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조직의 지방분해 증가와 지방 합성 감소에 기인한 체중 감소 뿐 아니라 이상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대사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

을 증명했다. 해남군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을 통해 해남 미니단호박에 저항성 전분이 다량 함유돼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체중조절 효능에 관한 기능성식품 원료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저항성 전분은 인체 내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위장관의 하부를 거쳐 대장에 들어가서 장내 유익세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상된 세포의 DNA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인체내에서 느리게 대사돼 소화 가능한 전분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당뇨와 비만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식품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남군은 동물임상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에 응모해 체중조절 효능의 인체임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항성전분 소재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단호박에서 추출된 국내 농산물 유래 천연 저항성전분 소재가 기능성 식품 원료로 등록되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성공적인 산업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주차장 연중 무료개방

영암군은 최근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도갑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 주차장과 사찰 관리를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은 지난 2019년 천황주차장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천황·도갑 주차장(천황 주차장 439대, 도갑주차장 150대)을 전면 무료 개방했다.

주차장 및 사찰 무료 개방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며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됐지만, 점차 변화되는 여행 패러다임에 따라 힐링을 위해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에 대한 편의 제공은 영암관광과 영암 상권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최복섭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삼학동 박은혜씨, 이웃돕기 CMS 정기 후원

목포시 삼학동 주민 박은혜씨(75)가 최근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CMS를 통한 정기후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기후원을 통해 CMS 계좌로 모금된 기부금은 매월 10만원씩 2년간(총 240만원) 목포복지재단에 지정 기탁돼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학동 거주 대학생에게 후원될 계획이다.

박은혜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로와 꿈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후원했다”며 “대학생들이 유능한 인재로 꿈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 강진 예원·대원식품, 장학금 기탁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최근 어업회사법인 ㈜예원(대표 김중욱)과 대원식품(주)(대표 김장현)에서 각 200만 원,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어업회사법인 ㈜예원과 대원식품(주)은 지난 2018~2019년 강진군과 투자협약을 맺고 2020년 칠량농공단지 신축공장을 준공했다.

두 기업은 미역, 다시마, 톳 등 전남도의 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해초 샐러드 등 웰빙 건강식품을 생산해 국내시장과 코스트코를 통해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김중욱대표는 “강진군민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 영암 미암면 지사협, 떡국 나눔

영암군 미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최근 사랑의 떡국 나눔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20kg 백미 23포를 준비하고, 최성식 미암면발전협의회회장이 20kg 백미 10포를 기탁해 만든 떡국 900kg 분량을 미암면에 전달했다.

조만동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

든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매달 반찬 봉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